

남원시, 설 명절 종합대책 추진

종합상황실 구축, 24시간 상황관리 및 재난 예방활동 추진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전개, 농·축·수산물 특별 지도 점검

남원시가 설 연휴 기간인 2월 9일부터 12일까지 시민들과 귀성객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갑잔년을 맞을 수 있도록 '설 명절 대비 민생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설 명절 대책을 위하여 남원시는 종합상황실을 구축하고 24시간 빈틈없는 상황관리 및 재난 예방활동을 추진하며 사건 발생에 따른 신속한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우선 독거노인 등 지역의 취약계층이 명절 기간 소외되지 않도록 읍면동장을 중심으로 직접 방문하는 취약계층 집중 살피기 기간을 운영해 따뜻한 명절

의 정을 함께 나누고 전통시장 활성화 위해 설맞이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행복나눔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직자가 술선수범해 어려운 이웃돕기와 사회복지시설 위문, 봉사 활동을 추진하여 나눔문화 확산에 선도적 역할도 수행할 계획이며, 시민 물가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16여개 중점관리 대상 품목을 선정해, 특별지도 및 점검반을 민관 합동으로 편성하고 현장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현장 단속

반을 편성 운영해 터미널 등 주요 정체 구간에 교통정리 요원을 배치하고, 공영주차장을 개방해 귀성객 및 시민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또한 연휴 중 발생한 환자들의 응급진료에 불편이 없도록 비상진료 대책을 수립, 응급 의료기관(남원의료원), 보건지소·보건진료소 등 당직의료기관과 당번약국을 지정 운영하고, 주요 관광지 주변 환경정비 및 연휴인 2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관한투원과 춘향테마파크를 무료 개방한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남원에서 맞이하는 이번 설 명절은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어느 해보다 따스하고 살갑게 느껴질 것이라며, 남원 시민은 물론 남원을 찾은 모든분들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원한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치유 1번지 순창 실랜드에서 치유음식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순창군청 제공>

순창 실랜드, 힐링 핫플레이스 인기

군, 지난해 1만6,000여명 방문... '설-데이' 치유체험 프로그램 호응

치유 1번지 순창 실랜드가 순창군 대표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순창 실랜드를 찾은 방문객은 총 1만6,000여명으로, 2022년 1만3,000명과 비교해 약 22%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SHIL)랜드의 실은 '쉬다'라는 의미를 포함해 'Sustainable Health In Life'의 약자로 지속 가능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공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으며, 전주에서 30분 남짓 걸리는 해발 300m 산중에 위치한 치유체험 명소다. 한번 오면 매년 방문하게 되는 순창 실랜드는 연중무휴 다양한 교육과 워크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며, 장수를 넘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웰에이징(Well-aging)을 실천하기에 탁월한 장소다. 실제로, 지난해 방문객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재방문 의사 부분에서 95% 이상 긍정적 답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인기있는 코스는 '설-데이' 치유체험 프로그램으로 1인 호텔식 숙소동에서 숙박하며 요가와 숲속 걷기, 향기테라피, 원예테

라피 등의 힐링 명상 프로그램과 함께 면역력을 회복할 수 있는 치유음식 체험, 건강강의 등이 진행돼 가장 호응도가 높다. 아울러,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동심놀이, 기업이나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연수, 전국 교장들의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한 인생설계 직무연수, 서울대 의대 교수진과 함께하는 미니메드 스쿨 등 연령 및 특성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해 매달 많은 기관으로부터 신청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실랜드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치유음식을 통한 면역력 향상과 온천수를 활용해 관절염 예방을 돕는 '면역 up, 헬스투어' 과정, 실랜드 정물방을 활용한 '웰니스 체험'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순창 주민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할 예정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순창 실랜드가 치유와 휴양 기반시설을 고루 갖추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전국에서 유일한 치유연수 거점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농협 순창군지부, 3행(行)3무(無) 실천 결의

임직원 윤리경영 실천 다짐

농협 순창군지부(지부장 이병희)는 지난달 31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농촌, 함께하는 100년 농협' 구현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3행(行)3무(無)실천'을 결의하고 윤리경영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3행3무'란 농협 임직원들이 실천(行)해야 할 세가지 항목과 근절(無)해야 할 세 가지 항목을 말한다.

'3행(行)'은 청렴(원칙을 지키며 깨끗하게 처신하기), 소통(생각의 공유로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기), 배려(상대방 존중하기,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기)이며, '3무(無)'는 사고(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및 횡령 금지), 갑질(상대방으로 우월한 지위의 남용 금지), 성희롱(상대방에게 불쾌한 성적인 언행 금지)이다.



농협 순창군지부는 지난달 31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농촌, 함께하는 100년 농협' 구현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고 윤리경영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병희 지부장은 "지속가능한 100년 농협을 구현하기 위해선 임직원 모두가 3행 3무 실천운동을 적극 실천해야

한다"며 신뢰받는 농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춘향제전위, 5월 10~16일 '한복 기부 캠페인' 진행

제94회 춘향제전위위원회는 오는 5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남원시 광한루원 일대에서 '춘향, COLOR愛 반하다' 주제로 개최되는 춘향제 기간 한복을 입고 춘향전 속 등장인물이 되어 축제를 만끽할 수 있도록 '한복 기부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한복 기부 캠페인은 춘향제 기간 축제 참가자를 비롯한 관람객이 춘향전 속 등장인물이 되어 축제를 더욱 즐겁게 누릴 수 있도록 재할용이 가능

한 한복을 비롯한 정통장신구, 개량한복, 한복과 어울리는 다양한 악세서리 등을 기부하는 캠페인이다.

기부는 집에서 입지 않게 된 한복이나 장신구 등의 훼손 및 오염 상태를 점검 후 재할용이 가능한 것만 가능하며, 오는 4월 말까지 춘향제전위원회(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어현동 37-69)로 방문 또는 착불 택배로 기부하면 된다. 춘향제전위원회 관계자는 "94회 남원춘향제에서는 멋과 전통이



함께 어우러지는 다양한 색깔의 한복을 입고 축제 참여자와 관람객 모두가 한국의 문화를 즐길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민선 8기 공약이행 군민이 직접 살핀다

순창군은 지난달 31일 민선 8기 공약 사항 조정 및 평가를 위해 주민배심원단 30명을 위촉하고, 순창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주민배심원단은 공약이행 현황을 지역주민이 직접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일환으로 지역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하는 주민들의 참여와 심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주민배심원단 모집은 18세 이상의 순창군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ARS(음성 응답 시스템)로 배심원 참여희망자 119명을 선별하고, 전화면접

을 통해 성별, 나이, 지역을 고려해 30명을 주민배심원으로 최종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순창군수의 위촉장 수여에 이어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 김기홍 광주 전남 본부장의 민주 시민과 주민배심원제 이해'를 주제로 한 사전교육, 원활한 토의 진행을 위한 분임 구성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회의에 참석한 최영일 순창군수는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배심원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며 배심원단 활동을 격려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임실군,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임실군이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2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시행하며, 지원 대상은 관광진흥법상 여행업 등록을 한 여행사이다.

관내 관광지 방문, 음식점 이용 등 지원 조건을 충족하고 일정 인원 이상일 경우 버스 한 대당 30만원이 지원된다.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여행사는 여행 3일 전까지 사전계획서와 일정표를 제출해야 하며, 여행 종료 후 15일 이내 지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임실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 도통지구 주차타워 완공

남원시가 시청 주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용성고 앞에 시설한 도통지구 주차타워가 준공했다 1일 밝혔다.

도통지구 주차타워는 지상 3층 규모로, 사업비 70억원(국비 35억원·시비 35억원)이 투입됐으며, 지난 2022년 11월에 착공해 약 1여년만에 완성, 주차면은 258면으로, 일반 주차 145면, 장애인 전용 8면, 확장형 80면, 경형 25면(친환경주차 14대 포함)이다.

특히, 층별 주차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주차유도 시스템, 엘리베이터, 비상벨,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을 갖추고 운전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확보하였으며, 또한 무질서한 장기주차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시범적으로 무료 개방을 실시하고 추후 유료화를 계획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황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치유연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일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유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문화재 중 하나도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